

[첨부]

한국원자력학회 제35대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정범진
소속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직위	교수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안전)	박사	1994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1995. 2. - 2002. 3.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사무관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기획
1999. 9. - 2001. 9	맨체스터대학	원자력연구그룹	열수력실험
2002. 3 - 2013. 2	국립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부교수	강의 및 연구
2012. 3 - 2013. 2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단장	국가 원자력연구 기획/관리
2022. 12. - 현재	NuScale(주)	사외이사	NuScale 주요정책 심의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08. 9. 1 - 현재	NET 편집위원	정책, 열수력분야
2010. 9. 1 - 현재	평의원	
2013. 9. 1 - 2014. 8. 31	사업이사	학회 사업
2017. 9. 1 - 2018. 8. 31	부회장	탈원전 대응
2020. 9. 1 - 2022. 8. 31	원자력 정책/인력/협력 부회장	부회활동, 소통(위) 참여 등
2022. 9. 1 - 2023. 8. 31	부회장	소통(위) 총괄, 정책발굴단

(예 : 임원, 평의원, 연구부회장, 편집위원, 좌장 등의 활동)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6. 9. 2 - 2021. 3. 20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력수급계획 등 심의
2012. 4. 20 - 2016. 4. 22	총리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원자력주요정책 심의
2022. 8. 20 - 2024. 8. 31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에너지기본계획 등 심의

(예 : 유관기관 위원회, 이사회, 자문활동 등의 활동)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력계가 그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의 영역임에도 정부와의 거리가 멀어졌었고 반핵단체의 선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국제정치와 밀접한 영역임에도 국내정치에 조차 활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 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탈원전 정책을 꺾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도 탈원전 정책을 다시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원자력계는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가 원자력을 중요한 무탄소전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원자력을 넣기에 이르렀습니다. SMR이라는 게임체인저가 등장하였고 건강한 원전부품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크게 기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는 건설에서 중공업으로의 시장의 변화, 주문시장에서 기성시장으로의 변화, 국제적인 규제표준에 대한 수요, 속도감 있는 R&BD 등 다양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변화에 따른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줄 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가 원자력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를 정책으로 압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원자력계가 소통하고 정책적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원자력계는 이러한 국가적, 시대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일을 통하여 행복, 보람,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개인적 가치와 국가적 가치를 조화시키고 원자력계의 비전정립에 학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후 수년간 공직에서 근무하였고 과기부, 산업부, 지자체, 정치권 등을 포괄하는 수많은 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원자력계 내부에서 획득할 수 없는 폭넓은 경험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기에는 국회 등 정치적 인사들과 교분을 가지고 정책적 입력을 제공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능을 살리고 때로는 정부나 안전규제 행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이 일에 원자력계의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학회는 일할 여건이 부족합니다. 자체적인 연구능력도 부족하고 이사진과 연구부회도 자발적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활용제도를 학회활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탈원전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 이제 도약하는 원자력계 그리고 존경받는 원자력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진 능력을 쏟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성명 : 정범진

(서명)